TensorFlow Playground XOR 실험 분석: 성공과 실패 사례 비교

XOR(배타적 논리합) 문제는 머신러닝에서 비선형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고전적인 예시입니다. 입력값이 서로 다를 때만 참(1)을 반환하므로, 단일 직선으로는 데이터를 완벽하게 분류할 수 없습니다.

이 문서는 텐서플로우 플레이그라운드를 활용하여 XOR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학습하는 경우와 실패하는 경우의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을 비교하고,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.

실험 1: 학습 실패 사례 (낮은 성능)

이 시나리오는 잘못된 설정으로 인해 모델이 XOR 패턴을 전혀 학습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.

◆ 설정값

• **Problem type**: Classification

• **Features**: x₁, x₂ (기본 특징만 사용)

• Hidden Layers: 1개 층, 2개 뉴런

• Activation: Linear (비선형성 없음)

• Learning Rate: 0.3 (과도하게 높음)

• Regularization: L2, λ=0.1 (상대적으로 강한 규제)

♦ 결과 및 분석

결정 경계가 단순한 직선 형태로 나타나며, 네 개의 데이터 군집 중 두 개만 겨우 맞추는 수준에 그칩니다. 결과적으로 **Train/Test Loss는 0.4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고, 정확도는 50% 수준**에 머무릅니다.

이러한 실패의 핵심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1. **Linear 활성화 함수**: XOR 문제는 본질적으로 비선형 경계가 필요합니다. Linear 함수는 입력값을 그대로 출력하므로, 여러 층을 쌓아도 결국 하나의 선형 함수처럼 동작합니다. 따라서 비선형 패턴을 절대 학습할 수 없습니다.
- 2. 부족한 모델 복잡성: 은닉층이 1개이고 뉴런 수가 2개에 불과하여, 복잡한 패턴을 표현하기에는 모델의 용량 (capacity)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.
- 3. 높은 학습률 (Learning Rate): 학습률이 너무 높으면 가중치(weight)가 최적의 값으로 수렴하지 못하고 발산하거나, 최적점 주변에서 크게 진동하여 안정적인 학습이 불가능합니다.
- 4. **과도한 규제 (Regularization)**: L2 규제는 모델의 가중치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제한하여 과적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. 하지만 이 경우처럼 모델이 단순한 상황에서 규제를 강하게 적용하면, 오히려 패턴 학습을 더욱 방해하여 모델이 지나치게 단순화됩니다.

실험 2: 학습 성공 사례 (높은 성능)

올바른 하이퍼파라미터 설정을 통해 XOR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경우입니다.

◆ 설정값

• **Problem type**: Classification

• **Features**: X₁, X₂, X₁X₂, X₁², X₂² (파생 특징 추가)

• **Hidden Layers**: 2개 층, 각 층에 4~8개 뉴런

• Activation: Tanh 또는 ReLU (비선형 함수)

• Learning Rate: 0.03 (안정적인 값)

• Regularization: 없음 (λ=0)

♦ 결과 및 분석

결정 경계가 데이터의 네 사분면을 정확하게 감싸는 비선형 형태로 나타납니다. 그 결과 Train/Test Loss는 0.01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감소하며, 정확도는 95% 이상을 달성합니다.

성공의 핵심 요인은 실패 사례와 정확히 대조됩니다.

- 5. **Tanh / ReLU 활성화 함수**: Tanh나 ReLU 같은 비선형 활성화 함수는 모델이 복잡한 곡선 형태의 결정 경계를 만들수 있게 해줍니다. 이것이 XOR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.
- 6. **충분한 모델 복잡성**: 2개 이상의 은닉층과 각 층의 충분한 뉴런은 XOR와 같이 복잡한 함수를 근사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제공합니다.
- 7. **적절한 학습률 (Learning Rate)**: 학습률이 안정적이므로, 손실(Loss)이 발산하지 않고 부드럽게 감소하며 최적의 가 중치를 찾아갑니다.
- 8. **파생 특징(Feature)의 활용**: x₁x₂와 같은 교차항 특징은 모델이 데이터의 상호작용을 더 쉽게 학습하도록 돕습니다. 이 특징은 XOR 문제에서 특히 강력한 힌트 역할을 하여 학습 속도와 성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.

⋒ 설정별 성능 비교 요약

| 구분 | 나쁜 설정 (성능 | 좋은 설정 (성능 | 이유 분석 |
|--------|------------|---|--|
| | 낮음) | 높음) | |
| 활성화 함수 | Linear | Tanh / ReLU | XOR는 비선형 문제이므로, Linear 함수로는 학습이 불가능하다. |
| 은닉층/뉴런 | 1층, 뉴런 2개 | 2층, 각 4~8 뉴런 | 모델의 깊이와 너비가 충분해야 복잡한 결정 경계를 만들 수 있다. |
| 학습률 | 0.3 (너무 큼) | 0.03 (적절) | 큰 값은 가중치 발산을, 적절한 값은 안정적인 수렴을 유도한다. |
| 사용 특징 | X1, X2 | X1, X2, X1X2, X1 ² , X2 ² | x ₁ X ₂ 와 같은 파생 특징은 비선형 관계 학습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. |
| 규제 | L2 (λ=0.1) | 없음 (λ=0) | 단순한 모델에 강한 규제를 걸면 오히려 필요한 패턴 학습을 방 해한다. |

결론: XOR 문제 해결의 핵심

텐서플로우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한 XOR 실험은 딥러닝 모델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

- 9. 비선형성 확보: 문제에 맞는 활성화 함수를 선택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요소입니다.
- 10. 적절한 모델 용량: 풀고자 하는 문제의 복잡도에 맞춰 **충분한 깊이(은닉층)와 너비(뉴런)**를 설계해야 합니다.
- 11. 안정적인 학습 환경: 학습률, 규제, 특징 공학 등 다양한 하이퍼파라미터를 신중하게 조정하여 최적의 학습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.